

아동의 유능감과 교실의 심리사회적 환경의 관계

이 경 님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유능감은 아동의 바람직한 학업적 성취를 비롯한 인지적, 사회 정서적 발달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영향을 미친다. 최근까지 아동의 유능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보면 아동특성 변인과 가족환경 변인의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아동기의 중요한 환경 변인이 학교 환경이 아동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드물었다. 그러므로 아동이 학교 생활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에서의 심리사회적 환경이 아동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의의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유능감(학업적, 사회적, 운동적)과 교실의 심리사회적 환경(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참여, 교실규칙, 교사통제)이 학년(5, 6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의 유능감에 대한 교실의 심리환경 변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한 공립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에 재학 중인 546명의 아동이다. 이들 중 5학년은 259명, 6학년은 287명, 남아 276명, 여아 270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유능감 척도와 교실환경 척도이다. 연구문제에 따라 이원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유능감은 각 하위영역에 따라 성에 따른 차이가 다르다. 즉 남아의 학업적 유능감과 운동적 유능감은 여아보다 높으나 여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남아보다 높다. 또한 아동의 학업적 유능감과 사회적 유능감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5학년의 운동적 유능감은 6학년 보다 높다. 둘째, 여아는 남아보다 교사관계와 교우관계를 더 친밀하게, 또한 교사통제를 더 많은 것으로 지각한다. 그리고 5학년은 6학년 보다 교사관계를 더 친밀하게 지각하며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셋째, 아동의 학업적 유능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수업참여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교우관계, 교사통제의 순으로 학업적 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교우관계를 친밀하게 지각할수록 또한 교사의 통제가 많다고 지각할수록 학업적 유능감이 높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교우관계였으며 그 다음 교사통제의 순으로 사회적 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교우관계가 친밀하다고 지각할수록 교사의 통제가 많다고 지각할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다. 아동의 운동적 유능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교우관계 나타났다. 즉 아동이 교우관계가 친밀하다고 지각할수록 운동적 유능감은 높다.